

지역 소식통

정읍시, 축산물 수급 안정화 위한 '도축 수수료' 지원

정읍시가 소비자 부담 경감과 축산물가 소득 안정을 위해 추석 전 수송기 동안 출하되는 모든 돼지(등의 제외)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제공함으로써 한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내달 8일까지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에 1마리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도축하는 돼지 가운데 등급판정(1+, 1, 2등급)을 받은 돼지의 소유자다.

지원 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농장이 있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가 지원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시카고 메인타운십 이진 교육위원 초청 특강

정읍시는 28일 연지아트홀에서 미국 시카고 메인타운십 이진 교육위원을 초청해 지역 교육관계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진 위원은 1974년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해 1984년 일리노이주립대(UIC)를 졸업하고 2013년 4월에 시카고 메인타운십 교육위원으로 처음 당선됐다.

2017년 재선 후 2021년 3선에 도전, 시카고 지역에서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3선에 당선되어 선출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이진 위원은 미국의 교육지방자치제도'를 주제로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도시정부의 교육자치정책과 행정 시스템, 미국 교육구조, 교육 선거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시카고 거주 한인들의 다양한 성공사례와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와 발전, 정착 과정 등을 사실적으로 전달해 특강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정읍시, 정보통신 기술 활용 비대면 서비스 본격화

정읍시가 정보통신 기술(AI-IOT)을 활용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나섰다.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스피커와 스마트폰, 혈압·혈당계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혈압·혈당 등을 측정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만성질환을 관리함으로써 건강 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

관련해 시는 오는 29일부터 'AI-IOT

기반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르신 180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단,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하며 스마트폰 기종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1~5등급),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 관리 자가측정기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사업참여가 결정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건강 면접조사 후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군별(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 건강 상태를 분류한다.

또 6개월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기기(활동량계, 체중계, 블루투스 혈압, 혈당계, AI 스피커 등)를 제공한다.

참여 어르신은 스마트폰과 대어받은 기기를 연동해 건강 미션을 수행하면 되고, 시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비대면 건강컨설팅과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등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정읍시보건소 방문보건팀(063-539-6096, 6748, 6749)으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지난 25일 전북-경북 농촌지도자 교류행사를 고창 웰파크시티 힐링카운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홍보

고창군, 영호남 농촌지도자 교류행사 열려

고창군이 지난 25일 전북-경북 농촌지도자 교류행사를 고창 웰파크시티 힐링카운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농촌지도자전라북도연합회 주관으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김제, 정읍, 고창 일원에서 진행됐다.

특히 고창군에서의 행사는 △영호남 화합의 밤 행사 △귀농귀촌 1번지 고창의 컨트롤타워인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견학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리는 선운산 도립공원 탐방 등을 실시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심덕섭 군수는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풍요로운 농업농촌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신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또 고창은 서해안 갯벌의 중심지역으로서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에 최적지임을 피력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부탁했다.

영호남 농촌지도자 교류행사는 1999년에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전북과 경북을 순회하며 화합과 선진농업 교류를 통한 지역 상생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양봉농가 돕기 '자동탈봉기' 시범구매사업 추진

고창군, 조달청 통해 20대 지원

고창군이 고령화 및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위해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자동탈봉기 20대를 지원한다.

자동탈봉기 20대에 1억1000만원을 무상지원 받기 위해 고창군과 양봉협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제품 성능검정을 위해 양봉농가 20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용 후 검증 자료를 작성, 보고하는 사업이다.

자동탈봉기를 사용하면 한 통에 평균 15~20분 걸리던 탈봉 과정을 1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 채밀과정에 5~6명의 노동력을 2명으로 줄일 수 있어 농가 인력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벌통 화분, 말벌피치장비, 소초광 등 다양한 기자재와 월동기를 대비한 보조사료 등 4개사업에 5억1500만



고창군이 고령화 및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위해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자동탈봉기 20대를 지원한다.

원을 지원하여 양봉산업 기반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을 계속할 계획이다"며 "생산된 꿀과 화분 등을 소비자들께서 신뢰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로컬푸드쇼핑몰, 추석 할인행사 진행

부안군 직영 로컬푸드쇼핑몰인 '텃밭할매(www.텃밭할매.kr)'가 오는 30일부터 추석맞이 할인행사에 들어갔다.

다음달 8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부안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과 명품 가공식품 등 46개 품목에 대해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최대3,000원까지 지급하고 택배는 무료로 배송한다고 밝혔

다. 부안 텃밭할매 쇼핑몰에서는 햇곡세트(6종), 표고버섯세트, 홍삼환, 떡갈비세트, 오디발효액가스 오디와인세트, 꽃게어간장세트 등 다양한 부안의 로컬푸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부안군관계자는 "부안로컬푸드 텃밭할매에서 가성비 좋은 선물세트와 제철농산물 등을 구입해 추석명절의 마음을 전하기 바란다"며 "특히, 소비자

의 선호도가 높은 오디와인등을 할인쿠폰과 무료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중소농가를 살리고 소비자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부안로컬푸드 '텃밭할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350농가(업체), 300개의 제품을 입점, 운영 중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자활생산품 시·군 순회 장터 열려

정읍시는 지난 28일 정읍시청 광장에서 2022년 자활생산품 시·군 순회 장터를 열고 전북지역 자활센터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자활생산품 순회 장터는 전북 광역 자활센터 주관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된 각종 제품을 시·군마다 순회하며 홍보, 판매하는 행사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활생산품 홍보를 통해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자활참여자들의 자긍심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이번 순회 장터는 도내 5개 시군 10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터에서는 천연비누와 수공예품 등 생활제품을 비롯해 도너츠와 파제, 누룽지 과자, 미숫가루, 선식가루 등의 식료품이 판매, 전시됐다.

이들 제품은 품질이 우수한 뿐만 아니라 유통마진이 없어 가격도 저렴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번 장터에서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게 됐다"며 "자활 참여자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활생산품 판매체계가 마련되어 지역 자활센터의 매출액이 증가해 저소득층 자활근로자가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